
김양수 作, '눈덮인 매화 위로 달빛 흐르고 고요한 향기는 가슴에 스며드네' (140×406cm)

섬진강에서 온 봄꽃소식

김양수 '섬진강 꽃잎편지-달밤에 묵매화 피면' 展
갤러리오차드 2월 7일~3월 9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문 밖은 아직 겨울이지만 절기는 입춘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었다. 한 발 앞서 봄소식을 전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갤러리오차드는 2월 7일(수)부터 3월 9일(금)까지 개관 3주년 기념전으로 김양수 초대전 '섬진강 꽃잎편지-달밤에 묵매화 피면'을 연다.

산과 강, 나무와 새, 꽃 등 자연 속의 작은 풍경들을 선(禪)적인 화폭에 담아온 김양수 화백이 이번엔 섬진강의 매화를 화폭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20 점의 묵매화는 김 화백이 섬진강변을 거닐며 마음으로 채집한 매화들을 기억 속에서 그려낸 그림이다.

"대부분의 삶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추위와 삶의 힘겨움으로 얼어붙은 대중의 몸과 마음을 조금 빨리 녹여보고자 봄소식의 전령인 매화를 주제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눈 덮인 수묵의 매화가지 끝엔 작은 꽃송이가 달리고 꽃송이가 품은 봄의 향기는 만월에 스민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길이 4m의 대작 '눈 덮인 매화 위로 달빛 흐르고 고요한 향기는 가슴에 스며드네(140×406cm)'이다. 그동안의 김 화백이 고요함, 여백, 절제, 사유 등 선(禪)의 언어와 닿아 있는 화법(畵法)으로 삶의 깊은 곳을 그려왔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일상의 호흡이 그려낸 화법으로, 눈앞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전시의 제목 끝에만 잠시 머물러도 김 화백의 마음과 만날 수 있다. '~달밤에 묵매화 피면', 제목 끝엔 '내일'이 숨어 있다. 함께 삶에 대해 묻고 바라보고 있다.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지 않고, 그 향기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평소 말해 온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도 꽃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는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겨울의 끝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통해 웅크린 각자를 위로하고, 자신을 위해 피지 않는 꽃의 모습을 통해 나와 곁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함이다. 예술이 삶에 필요한 이유를 새삼 발견하는 시간이다.

첫 개관전에 이어 3주년 기념 앵콜전으로 김 화백을 초대한 갤러리오차드의 이명지 대표는 "한국화가 위축되어 있는 국내 화단에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모던한국화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김 화백의 작품은 큰 반향이 되리라 믿는다"며 "섬진강의 매화를 아름다운 감성으로 재현해 낸 김 화백의 묵매화는 보는 이의 가슴에 가장 먼저 봄소식으로 다가갈 것이다"고 했다.

절제된 수묵과 문장으로 선의 세계를 추구해온 김 화백의 작업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28차례에 걸친 초대전과 다수의 개인전으로 선보인 바 있다. 문의/ 02-540-8901.

김양수 화백은
1960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예술대학, 중국 중앙미술학교 벽화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동국대 예술대학과 성신여대 겸임 교수를 지냈다. 시화집으로 〈내속 뜰에도 상사화가 핀다〉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을 출간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2월 프로그램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무장사비에 대하여'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2월 프로그램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을 기념해 3월 18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에 착안해 한국, 일본, 중국의 호랑이 미술을 선보인다.

김홍도(1745~1806 이후)의 '호랑이'를 비롯한 한 · 중 · 일의 회화, 조각, 도자기 및 옥기와 장신구에 표현된 호랑이의 의미에 대해 전시를 담당한 큐레이터가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조선의 화약무기(조선실, 2/7)', '철화백자의 멋(백자실, 2/14)', '무장사비에 대하여(서화관, 2/21)', '고조선과 한국 청동기 문화(고조선실, 2/28)'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해 큐레이터가 설명한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전시 설명 리플릿은 상설전시관 안내데스크에서 배포하며,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행사/참여마당-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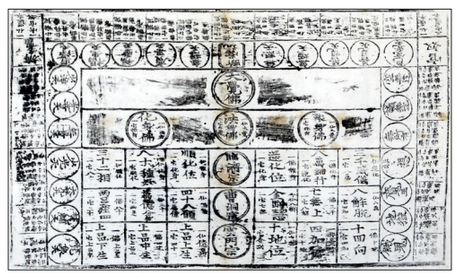
福 부르는 그림, 동아시아 歲畵 한자리에

〈세화〉

'복을 부르는 그림-동아시아 세화' 展
고판화박물관서 2월 4일~6월 3일까지

무술년 설을 앞두고 동아시아의 복(福) 관련 자료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 한선학)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2월 4일(일)부터 6월 3일(일)까지 '복을 부르는 그림-동아시아 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세화(歲畵)는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세시풍속으로 복을 부르는 그림인 세화를 집안에 붙여왔다. 정월 초하루에 판화로 그린 세화나 부적을 대문이나 집안에 붙여서 액운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한국, 성불도판(조선 말기)

동아시아인들의 세시풍속인 세화 판화를 소개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인들과 시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복과 관련 있는 한국의 세화 목판화를 비롯하여 중국의 연화(年畵 · 한 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중국화)와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 · 에도시대 발달한 풍속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베트남의 복 관련 민간판화 등 5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福'자 문자도와 장수를 기원하는 문자도,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어룡변화도와 십장생도, 부귀와 출세, 장수를 기원하는 복록수 삼성도, 책가도 판화, 집을 지키는 호랑이 판화 등 다양한 종류의 세화들을 선보임으로써 각 나라의 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세화 중에 주목되는 작품은 책거리 그림을 2폭의 판화로 제작한 책가도 세화다. 흑백 · 붉은색의 기본적인 다색판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이다. 또한 '부귀다남수복강령'이란 문자가 포함된 세화와 도교적인 부적을 불교로 회통하고 있는 '백살소멸만복부', 정초에 사찰에서 행하던 성불도 놀이를 그린 '성불도 놀이판' 등 다양한 세화가 소개된다.

중국 연화 중에는 '福'자와 '壽'자 안에 고사 속 인물들을 결합하여 다색판화로 표현한 소주 도화오 지방의 대형 연화가 있으며, 우리나라 책걸이와 흡사한 하북성 무강 지방의 '부귀화개' 책가도 다색판화가 또한 눈길을 끈다.

일본의 작품으로는 돈이 달린 나무를 짊어진 일본의 복신 에비스신을 다색판화로 표현한 우키요에와 일곱명의 복신이 배를 타고 집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한 히로시게의 칠복신 우키요에 작품이 눈길을 끈다.

베트남 작품으로는 민간 판화인 동호판화와 향총판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壽'자와 '福'자를 다색판화로 표현한 동호판화와 대형 다색판화로 표현된 향총판화, 4폭의 미인화와 4폭의 화조화도 눈길을 끈다.

박재완 기자


한국 맹호도(조선). 작가미상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빙의치유(귀신들림)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 (음독, 목매어, 투신) 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 원 불 사